

화사한 민화 단아한 한복의 매력



전통 민화와 한복.

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는 국 내외인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. 또 광주의 고유 음 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.

한국민화디자인센터와 다겸아트컴퍼니가 기획한 '한국을 담은 민화 특별전, 한국을 담 은 한복전'이 오는 28일까지 하이다이빙 종목 이 열리는 조선대 중앙도서관과 국제관에서 열린다.

23일 수영대회 응원차 광주를 찾은 김정숙 여사가 들르기도 했던 민화전은 서울 가회민 화박물관(관장 윤열수) 소장품을 만날 수 있 는 기회다.

민화전에는 화조도, 장생도, 모란도, 책가도 등 19세기 작품 116점이 전시되며 수영대회 를 맞아 물 속의 물고기들이 평화롭고 자유롭 게 노니는 모습을 표현한 '어해도'를 선보인 다. 최근 향유 인구가 늘어나 민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된 전시로 민화 애 호가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.

떠돌이 화가부터 화원 출신 화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층이 그린 민화는 궁중, 사대부 는 물론이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들이 향유한 친근한 그림으로 부귀다남, 부귀 공명, 무병장수, 수복강녕 등 많은 이들의 염 원이 담겨 있다. 또 일상생활, 신앙, 염원, 꿈 과 사랑 등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에서 병풍 등으로 쓰였다.

이번 전시에서는 고희자씨 등 호남 민화사 랑회 회원 작품 15점도 함께 전시됐다.

민화전과 함께 열리는 한복전에서는 한복디

'한국을 담은 민화 특별전. 한국을 담은 한복전'전 서울 가회민화박물관 소장품 116점·관례복 등 전시 고운선갤러리선 궁중복식 전…광주대표·북한음식 체험도

자이너 오점희씨의 작품인 관례복 5점과 족두 리 등을 만날 수 있다. 무료 관람.

지난 5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문을 연 고 운선갤러리도 궁중복식 전시회를 기획했다. 고운선갤러리는 한복디자이너 고(故) 고점례 대한민국 한복명장의 작품을 상설 공간이다.

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 명장이 재현한 화려한 궁중복식을 선보인다. 곤룡포, 적의, 노의, 황원삼, 활옷, 융복, 당 의, 답호 등 20여점을 만날 수 있으며 대삼작 노리개 등 전통 소품도 함께 전시된다.

갤러리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, 전시회 후 궁중의상을 직접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. 갤러리에는 '일월봉황도' 등이 그려진 포토존 등도 마련돼 있다. 무료 관람. 문의 062-372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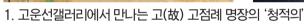
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광주대표음식 및 북한향토음식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.

오는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험에서 는 오리탕, 상추튀김, 주먹밥, 송정떡갈비, 육 전 등 광주 대표음식을 만날 수 있다. 또 함경 도 여름보양식 초계탕, 황해도 수수경단을 넣 은 냉콩국수, 개성 지역 조랭이 떡국 등 북한 향토 음식도 직접 만들어 본다.

실습은 무료로 진행되며 오숙자, 김봉화, 최 영자씨 등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 례음식장 등 20여명이 진행한다. 문의 062-410-6640.

/김미은 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

- 2. 가회민화박물관 소장작 '모란도'
- 3. 오는 28일까지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전시되는 '화조도'
- 4. '한국을 담은 한복전'에서 전시되는 오점희 한복디자이너의 작품.



변대용 작 '길 위에서'

어딘가로 떠나는 백곰 가족들의 모습이 미소를 머금해 한다. 푸 른물이 쏟아지는 컵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.

광주신세계갤러리는 아트바캉스전 '나만의 [] 해소법'을 25 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개최한다. 이번 전시는 귀여운 백곰 캐 릭터의 변대용 작가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점, 선, 면으로 표현하 는 엔조 작가 2인전으로 꾸려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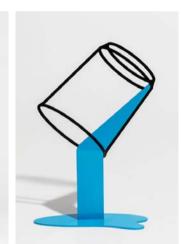
변대용은 알록달록 파스텔 톤의 아이스크림을 찾아가는 곰 가족 의 이야기를 통해서, 엔조는 3차원 공간 속 사물들을 검정색의 두 꺼운 외곽선과 시원한 푸른 색채의 2차원 입체 작품으로 개성 가득 한 작가만의 해소법을 제안한다. 작가들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담 긴 작품들이다.

동글동글한 동물 이미지를 산뜻한 파스텔 톤으로 표현한 변대용 의 '아이스크림을 찾는 백곰' 속 주인공들은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언제나 즐거워 보인다. 하지만 사실 백곰 가족은 빙하가 엄청난 속 도로 녹고 있는 지구의 재앙 속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 떠나는 여 정이다. 인공적이긴 하지만 알록달록한 색상의 달콤한 아이스크림 은 그들을 달래주는 위로와 위안의 상징이기도 하다.

엔조의 작품은 3차원의 현실을 원근법을 차용, 2차원의 평면 캔 버스에 표현해 온 기존 미술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했 다. 전시장 벽면에 그려진 것 같은 오브제들은 다시 자세히 보면 벽 면에서 떨어진 3차원의 입체 작품으로 흥미롭다.

문의 062-360-1271. /김미은 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

엔조 작 '아이스크림콘' '쏟아지는 컵'

문화전당, 광주정신 확산 '5월 스토리 퍼즐' 확대 운영

'오월 스토리 퍼즐', '오월카드', '열흘간의

위에 열거한 내용은 광주 5·18을 모티브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. '오월 스토리 퍼즐' 은 5·18 당시 광주 시내 지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퍼즐로 완성하는 현장학습이다. '오월카 드'는 카드를 활용해 5·18사적지를 기억하는

프로그램이며, '열흘간의 나비떼'는 광주5월 을 시간상으로 구성한 설치작품으로, 옛 전남 도청에 전시돼 있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(전당장 직무대리이진 식·이하 ACC)과 '5·18민주화운동, 민주·인 권·평화'가치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확대 운영한다. 현장학

습이 어려운 학교는 직접 방문해 운영하는 등 이를 토대로 및 '광주정신'의 가치를 확산하기 로 했다.

'오월 스토리 퍼즐'은 ACC에서 자체 개발 한 교구재를 활용해 전문강사가 진행한다. 해 당 프로그램은 올 초 광주교육청 협조로 희망 학교를 선정해 4~6월에 총 28개 학교를 운영

했으며 1000여 명이 참여했다. 지난 5월 기념 주간에는 옛 전남도청을 찾아오는 10개 학교 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도서 벽지 등 광주까 지의 현장학습이 어려운 18개 전남·북 학교를

하반기에는 모두 25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 이다.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10개 초·중학교 를 8월 28일까지 모집 중이다. 문의 062-601
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

사이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% 할인 판매



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~ 28일 예약/문의 062-228-8000/221-4114

www.shinyangparkhotel.com







[혁신기술상] 수상



"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<mark>"</mark>



☑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.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 ☑ 정직한 우수상품 **가격부담이 없습니다**.

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

062) 227-9940 062) 227-9970

<u>서울점 종로 5가역 1층</u>

02) 765-9940

순천점 중앙시장 앞

061) 752-9940